

미용업 종사자의 작업환경과 보건·안전 의식 분석

주명원¹, 김성남²

¹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²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Aanalysis on the working environment and health·safety awareness of beauty workers

Myung-Won Joo¹, Sung-Nam Kim²

¹Dept.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²Dept.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미용종사자들이 미용작업장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건강 위해 요인과 미용작업장 내의 사고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종사자의 보건·안전 의식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의 약 60%가 피부계, 호흡계, 근육계의 건강 위해 요인에 노출되어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미용작업장 내에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제 경험은 낮게 나타났다. 종사자의 근무 업종과 작업장 내의 위험성평가 실태에 따른 보건안전 의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미용작업장에 오가는 불특정 다수인과 종사자를 위한 보건 안전 표준화 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study surveyed the health risk factors and risk assessments status preventing accidents and incidents in beauty workplaces. In addition, the health safety awareness technicality was categorized.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Beauty workers (about 60%) were exposed to health hazards regarding the skin, respiratory, muscle system during more than half of their working hours. On the other hand, they recognized the need for risk assessments in the workplace. The health safety awareness in the workplace differed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risk assessment and the category of business. This provides the basic data that can be activated to manage health safety standards for workers and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Key Words : Beauty worker, Beauty workplace, Health-safety awareness, Risk assessm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미용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전신 즉, 피부와 모발, 손·발톱 등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보호하며 나아가 그 상태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피부, 헤어 및 두피, 메이크업, 네일에 관한 적절한 수기관리와 도구와 제품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용업 종사자의 보건·안전 지식과 올바른 작업장 환경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종사자의 고객을 위한 위생 지식과 실천적 태도와 더불어 종사자의 자신의 건강과 보건·안전 의식을 함양하여 고객과 종사자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실시한 '뷰티서비스업 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 실태 조사'에 의하면 뷰티산업은 인적 서비스산업으로 작업무별 육체적인 노동부하가 매우 크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인자 등 작업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1]. 미용업 종사자는 전문직업인으로 정신적, 심리적 부담과 작업증가로 정신적, 신체적 피로가

*Corresponding Author : Myung-Won, Joo(Seokyeong Univ.)

Tel: +82-10-9755-0966 email: venatan@naver.com

Received October 26, 2014

Revised December 2, 2014

Accepted March 12, 2015

Published March 31, 2015

누적되며, 반복적인 기구의 사용, 장시간 기립된 상태의 유지, 불균형적인 자세와 복잡한 장비와 도구의 사용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자가증상을 호소하고 있다[2]. 따라서 미용업 종사자는 고객의 건강과 위생 부분을 주의하여 작업을 해야하며, 반복된 위해요소의 노출을 인지하여 가능한 위해요소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표준화 관리를 통하여 고객과 미용업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건강까지 유념하여 작업장 환경을 마련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장 환경을 구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s)이다.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위험성평가란 위험과 연관된 결과의 형태, 심각성, 발생 가능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계량적으로 밝히는 작업이다. 위험성 즉, 발생된 위험한 사건의 빈도와 결과의 조합인 위험성의 정도를 진단하여 그 위험성이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지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라 할 수 있다[3]. 다수가 이용하는 미용작업장 환경에서 이러한 위험성평가의 적용을 통해 미용작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사건을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미용작업장 내에서 필요한 위험성평가는 미용 도구, 기기, 제품, 환경, 직업적 질환 등과 관련하여 위험한 요인을 찾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표준화된 관리형식으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영국의 보건안전청(HSE)에서는 공장, 실험실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하여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미용업과 관련하여서도 그 실제적인 위해요소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연구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평가를 우리의 미용작업장 환경에 적용하고 활용한다면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용작업장 내 보건과 안전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업무 분야와 작업형태, 보건과 위생 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4],[5],[6]. 본 연구에서는 실제 종사자가 어떠한 보건·안전 의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주요적으로 분석하고, 사고와 재해 등을 미연에 방어해 줄 수 있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용작업장 내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다면 미용작업장 위험 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객뿐만 아니라 미용업 종사자의 건강을 지키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위험성평가를 활용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건상태와 안전이 확보된 미용 작업장 환경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기간

2014년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피부, 헤어, 네일 및 메이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하여 신뢰할 수 없는 23부를 제외하고 577부를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광미애[7], 김정화[8], 김인아 외 [9]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보안 작업을 통해 설문 문항을 완성하였다. 일반적 특성 5문항, 위험성평가 실태 2문항, 미용작업장 건강 위해요인 노출 정도 6문항, 미용작업장 안전의식 18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2.3 자료처리 및 분석

자료처리 및 분석을 위하여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위험성평가 실태, 미용작업장 내 건강 위해요소 노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보건·안전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근무업종과 위험성평가에 따른 보건·안전의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2.4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연구대상자의 보건·안전 의식은 유형화되어 구분될 것이다.
- 둘째, 연구대상자의 근무업종에 따라 보건·안전 의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셋째, 연구대상자의 미용작업장 내 위험성평가 실행여부에 따라 보건·안전의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필요성 인지에
 부에 따라 보건·안전의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결과

4.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근무 업종은 피부분야가 198명(34.3%), 헤어분
 야가 196명(34.0%), 네일 및 메이크업 분야가 183명
 (31.7%)로 나타났다.

미용업무에 대한 정신적 부담정도는 전혀 힘들지 않
 다가 31명(5.4%), 견딜만하다가 127명(22.0%), 보통이다
 가 145명(25.1%), 약간 힘들다가 177명(30.7%), 매우 힘
 들다가 97명(16.8%)로 연구대상자의 약 47.8%는 일에 대
 한 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업
 무에 대한 육체적 부담 정도는 전혀 힘들지 않다가 15명
 (2.6%), 견딜만하다가 159명(27.6%), 약간 힘들다가 146
 명(25.3%), 매우 힘들다가 120명(20.8%)으로 연구대상자
 의 약 46.1%가 일에 대한 육체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 | Spec. | N | % |
|----------------------------|----------------------|-----|-------|
| Age | 20-29 | 348 | 60.3 |
| | 30-39 | 174 | 30.2 |
| | 40-49 | 45 | 7.8 |
| | over 50 | 10 | 1.7 |
| Gender | Male | 79 | 13.7 |
| | Female | 498 | 86.3 |
| category of business | Skin | 198 | 34.3 |
| | Hair | 196 | 34.0 |
| | Nail/Make up | 183 | 31.7 |
| Mental pressure for work | Isn't it hard at all | 31 | 5.4 |
| | Tolerable | 127 | 22.0 |
| | Normal | 145 | 25.1 |
| | A bit difficult | 177 | 30.7 |
| | It's very hard | 97 | 16.8 |
| Physical pressure for work | Isn't it hard at all | 15 | 2.6 |
| | Tolerable | 159 | 27.6 |
| | Normal | 137 | 23.7 |
| | A bit difficult | 146 | 25.3 |
| | It's very hard | 120 | 20.8 |
| Total | | 577 | 100.0 |

4.2 미용작업장 내 위험성평가 실태

연구대상자의 미용작업장 내 위험성평가 실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미용작
 업장에서 위험성평가에 대한, 즉 미용작업장 환경과 사
 용도구와 기기, 직원 복지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위험한
 요소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일
 련의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연구대상자는
 175명(30.3%), 진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연구대상자는
 402명(69.7%)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대상자의 435명
 (75.4%)이 위험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연구대
 상자의 142명(24.6%)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미용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위험성평가에 대한 필
 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이에 대한 경험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와 관리자가 해당 작업장에 적합
 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여 안전한 작업장환경을 조성하
 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2] Risk assessments status in beauty workplace

| | Spec. | N | % |
|-----------------------------------|-------|-----|-------|
| Risk assessments's practice check | Yes | 175 | 30.3 |
| | No | 402 | 69.7 |
| Risk assessments's need | Yes | 435 | 75.4 |
| | No | 142 | 24.6 |
| Total | | 577 | 100.0 |

4.3 미용작업장 건강 위해요인 노출 정도

연구대상자의 미용작업장 내의 건강 위해요인 노출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 화학제품을 취급
 하거나 피부와 접촉하는 부분에 대한 노출 정도는 근무
 시간 절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48명(25.6%)으로 가장
 많았고,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동작에 대한 노출 정도
 는 근무시간 내내라고 응답한 경우가 214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연기, 가루, 먼지, 미용 제품 분진 등의
 흡입에 대한 노출 정도는 근무 시간 1/4이라고 응답한 경
 우가 161명(27.9%)으로 가장 많았다.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에 대한 노출 정도는 근무 시간 3/4가 185명
 (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속 서 있는 자세에 대한
 노출 정도는 근무 시간 내내라고 응답한 경우가 159명
 (27.6%)으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 약 93.4%가 근골
 격계와 관련한 건강 위해요인에 절반이상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시간 같은 근육이나 움직임을 요
 하는 일은 전신피로와 국소피로를 증가시키며 이러한 피
 로를 유발하는 시간이 길수록 회복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Table 3] The degree of exposure during work hours for health risk factor in beauty workplace

| Spec.(N=577) | | The degree of exposure during work hours | | | | |
|--|---|--|-------------|------|---------------|----------|
| | | Never exposed | One-quarter | Half | Three-quarter | All time |
| Chemical products handling or skin contact | N | 110 | 119 | 148 | 60 | 140 |
| | % | 19.1 | 20.6 | 25.6 | 10.4 | 24.3 |
| Repetitive hand movements or arm movements | N | 6 | 32 | 128 | 197 | 214 |
| | % | 1.0 | 5.5 | 22.2 | 34.1 | 37.1 |
| Inhalation of smoke, powder, dirt, dust products | N | 66 | 161 | 123 | 75 | 152 |
| | % | 11.4 | 27.9 | 21.3 | 13.0 | 26.3 |
| Attitude to fatigue or pain | N | 23 | 69 | 134 | 185 | 166 |
| | % | 4.0 | 12.0 | 23.2 | 32.1 | 28.8 |
| Continued standing posture | N | 124 | 101 | 86 | 107 | 159 |
| | % | 21.5 | 17.5 | 14.9 | 18.5 | 27.6 |

더욱더 길어지게 될 수 있다[10]. 작업대의 높낮이와 공간 동선을 편리하게 작업환경을 조절하여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피로도를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화학 물질을 접촉하거나 분진흡입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의 약 60%가 피부계, 호흡계에 관련한 위해요인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업 종사자들은 직업성 피부, 호흡기 및 근골격계 증상과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2].

4.4 미용작업장 보건·안전의식 유형화

연구대상자의 미용작업장 보건·안전의식을 유형화하

고 측정 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 1.0이상, 요인 적재치는 0.4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0.6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4.4.1 보건·안전의식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분석 결과, 이론 구조에 맞게 적재되지 않은 3문항을 제거한 후,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으로 미용작업장 보건·안전의식에 대하여 요인 1를 '숙지형', 요인 2를 '중지형', 요인 3를 '무지형', 요인 4 '무시형'으로

[Table 4] Health-safety awareness of workers in beauty workplace

| Spec. | Health-safety awareness | | | |
|--|-------------------------|--------|--------|--------|
| | 1 | 2 | 3 | 4 |
| I talk about the health-safety problems of beauty workplace with coworkers. | .696 | .224 | .032 | -.227 |
| I know exactly what to do when if is dangerous situation in beauty workplace. | .672 | .116 | -.487 | .129 |
| I know that for workers using health-safety device and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 .670 | .043 | -.448 | .251 |
| I provide workers health-safety information regularly. | .662 | .221 | -.334 | -.047 |
| I let workers know health-safety problems of beauty workplace immediately. | .637 | .250 | -.080 | -.313 |
| I set store by both work and health-safety. | .106 | .857 | -.018 | -.126 |
| I put a high priority on health-safety in the management of beauty workplace. | .231 | .792 | -.086 | -.086 |
| I think health-safety of workers is paramount, even if management is somewhat difficult. | .113 | .763 | -.010 | -.002 |
| I deal strictly and decisively if the health-safety problems occur. | .294 | .565 | -.220 | -.217 |
| I don't know how to maintain or improve health-safety of beauty workplace | -.167 | -.061 | .873 | .175 |
| I don't know how to prevent accidents, disease that may occur in beauty workplace. | -.257 | -.095 | .856 | .144 |
| I don't reproach to persuade workers on working unsafely. | -.177 | .028 | -.021 | .760 |
| I have a concern about the health-safety after the accident. | .041 | -.036 | .063 | .692 |
| I can disregard the health-safety policies and procedures in accordance to the smooth operation processing and completion. | .190 | -.321 | .250 | .577 |
| I want to be faster than keeping the work rules when I am busy. | -.287 | -.211 | .094 | .574 |
| Eigen Value | 2.637 | 2.602 | 2.183 | 2.072 |
| variance explanation | 17.579 | 17.349 | 14.557 | 13.815 |
| Cumulative | 17.579 | 34.928 | 49.484 | 63.299 |
| Cronbach'α | 0.801 | 0.687 | 0.867 | 0.643 |

분류하여 명명하였다.

숙지형은 작업장 내에서 보건·안전문제에 대해 동료들과 자주 대화를 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표준작업 절차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이다. 중시형은 업무와 보건·안전문제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경우이다. 무지형은 작업장의 보건·안전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방법과 발생가능 사고와 그것에 대한 예방법을 모르는 경우이다. 무시형은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 보건안전 규정을 무시할 수 있으며, 작업이 바쁠 때에는 작업 규칙보다 빨리 업무를 완성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이다.

4.5 업종에 따른 보건·안전의식 차이

연구대상자의 업종에 따른 보건·안전의식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5]. 업종에 따라 보건·안전의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작업장 내에서 미용작업업무와 보건·안전문제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고, 보건·안전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보건·안전 중시형은 헤어 업종 집단과 네일·메이크업 업종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헤어, 피부, 네일·메이크업 업종 집단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미용업은 작업형태와 사용 도구 등이 근무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분야 각각에 적용될 수 있는 보건·안전 표준화 관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Table 5] The difference of health/safety awareness according to category of business

| Spec. | N | M | SD | F | p | |
|------------------|--------------|-----|--------|------|-------|--------|
| "Know well" type | Skin | 198 | 2.70ab | .84 | 6.876 | .001** |
| | Hair | 196 | 2.83b | .80 | | |
| | Nail/Make up | 183 | 2.51a | .91 | | |
| "Important" type | Skin | 198 | 3.48ab | .92 | 3.318 | .037* |
| | Hair | 196 | 3.53b | .79 | | |
| | Nail/Make up | 183 | 3.30a | .91 | | |
| "Ignorant" type | Skin | 198 | 3.21b | 1.13 | 5.994 | .003** |
| | Hair | 196 | 2.95ab | 1.00 | | |
| | Nail/Make up | 183 | 2.84a | 1.10 | | |
| "Disregard" type | Skin | 198 | 2.99ab | .85 | 4.221 | .015* |
| | Hair | 196 | 2.88a | .72 | | |
| | Nail/Make up | 183 | 3.12b | .84 | | |

*p<.05, **p<.01 Scheffe post hoc tests : a<b

4.6 위험성평가 실행여부에 따른 보건·안전 의식 차이

위험성평가 필요성에 따른 보건·안전의식 차이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6]. 미용작업장 내의 위험성평가 실행여부에 따라 안전의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숙지형은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집단과 진행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중시형은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집단과 진행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무지형은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집단과 진행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무시형은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집단과 진행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상시 작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경험한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건·안전에 대하여 숙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장에서 정기적인 위험성평가는 종사자 스스로 보건·안전 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The difference of health/safety awareness according to risk assessments conducted

| Spec. | N | M | SD | t | p | |
|------------------|-----|-----|------|------|--------|---------|
| "Know well" type | Yes | 175 | 3.01 | .70 | 6.781 | .000*** |
| | No | 402 | 2.54 | .89 | | |
| "Important" type | Yes | 175 | 3.76 | .67 | 6.720 | .000*** |
| | No | 402 | 3.30 | .92 | | |
| "Ignorant" type | Yes | 175 | 2.81 | .96 | -3.076 | .002** |
| | No | 402 | 3.09 | 1.13 | | |
| "Disregard" type | Yes | 175 | 2.79 | .75 | -4.033 | .000*** |
| | No | 402 | 3.08 | .82 | | |

*p<.05, **p<.01, ***p<.001

4.7 위험성평가 필요성에 따른 보건·안전의식 차이

위험성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 여부에 따른 안전의식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7]. 위험성평가 필요성 판단 여부에 따라 보건·안전의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중시형은 위험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무지형은 위험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두 집단 모두 상대적으로 보건·안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험성평가와 보건·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위해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까지 함양한다면 보다 더 안전한 미용작업장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7] The difference of health-safety awareness according to risk assessments's need

| Spec. | | N | M | SD | t | p |
|------------------|-----|-----|------|------|--------|---------|
| "Know well" type | Yes | 435 | 2.69 | .84 | .243 | .808 |
| | No | 142 | 2.67 | .91 | | |
| "Important" type | Yes | 435 | 3.51 | .82 | 3.590 | .000*** |
| | No | 142 | 3.21 | 1.01 | | |
| "Ignorant" type | Yes | 435 | 2.94 | 1.07 | -2.796 | .005** |
| | No | 142 | 3.23 | 1.12 | | |
| "Disregard" type | Yes | 435 | 3.01 | .79 | .580 | .562 |
| | No | 142 | 2.96 | .88 | | |

*p<.05, **p<.01, ***p<.001

5. 논의

미용업은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는 작업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개별 고객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만족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용업종사자는 업무에 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며,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미용작업장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 작업환경 등의 투자와 배려가 요구되며, 직업만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11].

미용업 종사자는 근골격계, 피부계, 호흡기계 등에서 건강 위해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개인적, 직업적 및 사회 심리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12], 미용작업장 환경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종사자들이 직업성 피부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작업장 내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방법과 보관관리 등은 중요한 문제이다[13]. 미용실의 공기 질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은 매우 높으며, 피곤한, 목, 눈의 통증 등의 자각증상을 호소하는데 이는 각종 화학물질의 노출이 주요원인으로 미용사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유해 공기 오염물질 노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14]. 미용업무는 같은 동작과 화장품, 피부제, 염색약 등을 사용해야 하므로 종사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적절한 휴식시간을 갖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주는 관련 교육과 작업장 설비와 예방 도구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

미용작업장 내의 모든 잠재적 위해요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발생 결과를 예측한다면 작업장 내의 존재하는 종사자와 불특정 고객, 일반인등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용업은 작업 관련사고 및 재해에 관한보고 체계가 다른 직종에 비하여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고, 작업 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작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안전의식의 부재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15]. 미용업 종사자의 보건·안전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화학물질의 위험요소, 안전교육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친다[16].

또한 만성적인 건강 위해요소의 통제와 더불어 최근 국가 전반적인 이슈인 '안전'에 대한 논쟁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위험성평가를 통해 작업장 내 화재, 폭발, 쇼크, 골절, 테러 등의 위험상황 발생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업무 형태별로 위험성평가 도구 개발을 통해 실제 작업장에 적용하여 종사자의 보건·안전의식 수준을 연구한다면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에 대하여 뒷받침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약 47.8%와 46.1%가 업무에 대하여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나, 작업장 내에서 이에 대한 실제 경험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근골격계, 피부계, 호흡계와 관련한 건강 위해요인에 노출되어 작업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보건·안전의식은 숙지형, 중시형, 무지형, 무시형으로 유형화되어 분석되었으며, 연구대상자의 근무업종, 미용작업장 내 위험성평가 실행여부와 필요성 인지여부에 따라 보건·안전 의식에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미용업무에 있어 위해 요인을 완전하게 분리할 수 없으므로 미용작업장 사업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위해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건 환경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보건·안전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작업장 자체적으로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미용업종사자의 위험성평가 교육과 그 실제 활용을 통해 미용작업장의 안전 표준화 관리에 집중한다면 보다 더 안전한 미용작업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업무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

[1]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tus Survey for beauty service workers-It is urgent health protection measures for beauty workers", Statistical Press Release, 2011.12.09.

[2] D. M. Kang, J. T. Lee, M. S. Kang, S. H. Park, S. H. Urm, S. J. Kim, K. W. Jeong, H. S. Shon, B. J. Park. "Prevalence on dermatologic, respiratory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among hairdressers", Korean J occup environ med, Vol. 11, No. 9, pp. 385-392, 1999.

[3] S. Kim. "The activation of regulation policy measures based on risk analysis", Study report,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4, pp. 9-12, 2007.

[4] M. J. Son. "Hair designer's sanitary recognition and sanitary behavior", Master's degree Yeungnam University. 2009.

[5] S. H. Yoo. "Real state of cognition for safety and hygiene in nail salon, and analysis of nail treatment tools contaminated with microorganisms", Master's degree Seokyeong University. 2011.

[6] E. S. Kwun, K. O. Shin. "A study on needs of estheticians' individual hygie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 20, No. 6, pp. 377-383, 2014.

[7] M. A. Kwak, "Attitude study and pilot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of harmful risks self-control(risk assessment)". Study report.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pp.781-797., 2012

[8] J. H. Kim, A Study on the pain characteristics of the hand parts and the factors related to grip and pinch strength among estheticians, Master's degree Daegu Hanny University. 2013.

[9] I. A. Kim, C. N Kim, G. H. Hong, J. H. Hwang, S. Y. Choi, D. H. Kim, J. O. Kim, S. H. Yoo, J. M. Lim. "A survey on exposure risks, injury experiences and health problems of beauty industry workers". Study report.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pp.196-205., 2012.

[10] K. J. Chai. "A Study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prevention in the skin beauty artists", The Korean society for aesthetics and cosmetology, Vol. 7, No. 4. pp. 73-85. 2009.

[11] W. S. Choi, K. J. Min, "The Impact of Stress and Woking Environment on Occupation Satisfaction of Skin Care Exper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semiannual part 2, pp.663-666. 2011.

[12] D. S. Ko, D. I. Lee, T. S. Ko, "Changes in job stress, self-efficacy, depress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degre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for white-collar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6 pp. 2935-2944,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935>

[13] H. J. Ko, A Study on some hairdressers' exposure to hazard material and their skin symptoms, Master's degree Korean University. 2012.

[14] M. R. Song, "Air pollutants and personal exposure of beauty shops in kwangju metropolitan city", Master's degree Kwangju women's University. 2004.

[15] S. Y. Choi, K. K. Hur, D. H. Park, "Level for Beauty Product Safety of Beauty Industry Employe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ol. 14, No 4, pp. 59-69, 2012.

[16] J. A. Cho, "A Study on the Working Safety Recognition and Chemical Hazard Recognition", J. Kor. Soc. Cosm., Vol. 13, No. 3, pp.1028-1039, 2007.

주 명 원(Myung-Won Joo)

[정회원]



- 2011년 3월 ~ 현재 :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박사과정
- 2011년 3월 ~ 현재 :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외래 교수

<관심분야>

미용, 보건, 교육

김 성 남(Sung-Nam Kim)

[정회원]



- 2002년 3월 ~ 2005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상학과(이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교수

<관심분야>

미용, 사회과학, 교육